

광주시장·전남지사 새해 청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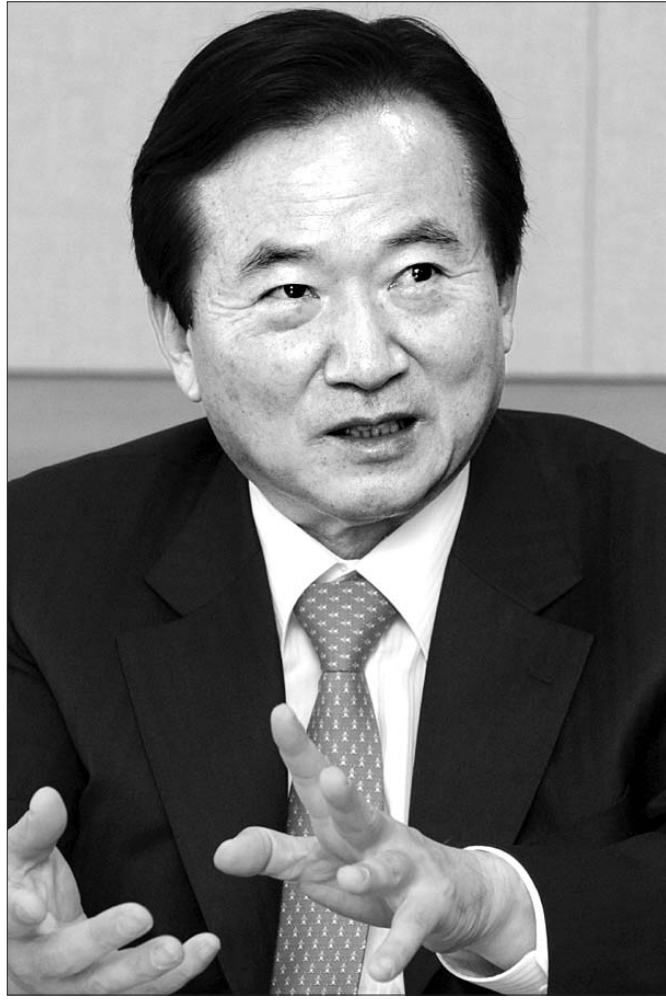
광역단체장의 하루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돌아간다. 평균 5개의 행사에 참석하고 세 번가량 회의를 주재하며, 30여명의 민원인을 만나야 한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2011년은 공약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시기이다.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와 '녹색의 땅 전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바쁜 한 해를 보낼 두 단체장의 새해 청사진을 미리 들여본다.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문화산업 키울 한미 합작법인 추진”

- 민선 5기 6개월의 성과는. ▲광주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광주는 자랑스러운 곳이며, 시대적으로 비상할 때가 됐다는 것을 시민들도 인식하게 됐다. 또 짧은 기간이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얻었고,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금 세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대적 소명의식도 공유했다고 본다. -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의 구체적인 이미지는 무엇인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시민들 모두가 살맛이 나고 서로 아끼며 보듬어주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가는 도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계인들이 반갑고 싶어하고 광주에 살고 싶고 여행 오고 싶은, 그런 도시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다. - 2011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100개 기업 1만개 일자리 10% 경제성장 다짐  
매주 시민과의 대화로 '참여와 소통' 시정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우선 연구개발(R&D) 특구에 한·중·일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모이도록 하고 세계적인 특구로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광주를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허브로 만들기 위해 미국과 합작법인을 만들 방침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2년 부분개관하고, 합작법인이 콘텐츠를 생산해낸다면 광주는 아시아 문화 허브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10·100·10000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100개의 기업을 유치해 1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성장률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 - 국내 최초로 지정되는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기대가 높다. ▲지난해 말 남구 송하동 CGI(컴퓨터영상합성기술)센터권역,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서구 양동 KDB생명빌딩 등 3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과 권역별 특화된 기업체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수요자중심의 제도 정비, 문화산업 유치기반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과 문화콘텐츠투자법인을 설립·운영하고, 투자진흥지구 전문기구인 투자법인 본부도 돌 예정이다. -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준비는. ▲올 상반기까지 대회에 필요한 70여개 경기시설 건설 및 개·보수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수촌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본다. 대회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 세계대학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2014년 단일종목 세계대학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겠다. 야구가 대회 종목으로 포함되면서 광주에 새 야구장이 들어서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금요일마다 '시민과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운태 광주시장이 3일 오전 시무식에 앞서 공직자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과거 소통 부재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이 첨예해지고 현안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다. '참여와 소통'은 시대적인 과제로, 시민과의 만남의 날은 민선 5기와 그 전을 차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금까지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2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운영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의 최우선 고려대상은 시민이어야 하며 이는 당연한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기업 2천개 유치...인구 200만 회복”

-2011년 올해 주요 도정 목표는. ▲크게 3가지다.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3농 정책'으로 농·수·축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졌는데. ▲6년 전인 2005년부터 '녹색의 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변화를 추진해온 결과다. 현재도 전국 친환경농업 인증면적(10만4682ha)의 52%에 이르지만 유기농 재배 면적을 더 늘려야 한다. 현재는 1%(2754ha) 수준이지만 2014년까지 15%(4만6700ha)까지 확대할 것이다. 저비용으로 유기농을 실천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단순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3농 정책'으로 농·수·축산 미래산업 육성  
F1·엑스포 등 4대 행사 성공개최 준비 역점

-현재 전남 인구가 191만8000명이다. '인구 200만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농·수·축산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고 4년동안 기업 2000개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변화도 중요한 만큼 산업 파급 효과를 고려해 비교우위자원 연관산업과 전략산업 등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전남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2 국제농업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인구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올해 F1 대회는 제대로 치러질 수 있나. ▲지난해 대회는 처음이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올해는 경주장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된다. 홍보·마케팅 방안을 통해 수익성을 창출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 F1 대회조직위원회 주도로 전환, 운영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겠다. -여수세계박람회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박람회장 주요 시설물들이 순조롭게 건설 중이다. 개최 전인 2012년 4월까지 완료될 것이다. 다만, 여수산단 진입도로와 목포~광양,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 올해 박람회 핵심 SOC 사업 예산이 요구액의 75%만 반영,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박람회 전인 2012년 1월말 개통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무안공항 문제는 어떻게 풀릴 것인가.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이자 공동운명체다. 시·도가 갈등으로 대립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도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장관이 바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3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강진지역 농가를 방문,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꾸고 시장·도지사가 바란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면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광주공항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사항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입장에 맞춰야 한다. 광주공항 기능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조속히 이전 통합되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아 호남권의 공동 성장의 길이 열릴 것 기대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작용 거의없이 피부 재생, 탄력 살리고 주름 개선

대한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00611-증-18671호 광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조직은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간다. 이와 같은 노화현상이 진행되면 필수록 피부가 처지면서 뺨과 코 옆, 입주변 등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개선하는 히알루론산 치료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히알루론산은 인체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하며,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갖고 있는 점액질 물질로서 특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 피부분이 칙칙해지고 탄력이 사라지면서 노화현상이 진행 되는 것이다. 히알루론산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주사침 구멍 감염우려와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알레르기)이 있을 수도 있다.

비수술적 성형 '히알루론산 시술'

여기에 또 하나의 노화현상인 피부 건조증이 더해지면 잔주름이 더욱 악화된다. 물론 피부분이 어두워지고 탄력도 떨어진다.

히 피부와 관절, 연골 등에 많이 분포한다.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맑고 투명한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히

히알루론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 내 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주로 손등, 목 등 전반에 걸쳐 주름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시술은 마취연고를 바르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으며 얼굴 전체 시술시 15분 가량, 목 전체 시술시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통 2~4주 간격으로 3회 시술받게 된다.

피부의 섬유 조직 사이에 들어있는 젤리 상태의 물질인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이며, 특히 피부에 직접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피부를 재생시켜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062-227-3777 무등극장 앞

3회 시술받게 된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